



교섭속보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산별현장교섭 1차 교섭 보고

노사 신뢰 쌓기는 易地思之에서! 의료원발전은 함께 가는데서!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의 산별현장교섭이 진행됐다. 6월 27일 오후 3시 의학관 317호에서 열린 1차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노사 대표위원 및 참관인들이 자리했다. 1차 교섭은 교섭위원 전체인사로 시작해 노사 대표위원의 인사를 듣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이기형 의무부총장, 직원 분들 힘드신 것 해결하려 한다.

노사 한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자.

노사 대표 인사에서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직원 분들이 힘드시고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이 큰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것에 노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최희선 본부장, 명실상부한 고대의료원의 역할 바란다.

밖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자.

이어진 대표위원 인사로 최희선 본부장은 “명실상부한 고대의료원지부의 임금협상이 노사의 자주성으로 자율적으로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섭에서는 노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했으면 한다. 그런 교섭이면 충분히 대화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6월 19일 노사공동선언을 진행했다. 그 때 주제가 안전한 병원, 좋은 일자리 만들었는데 고대의료원이 내부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고대의료원지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간호등급이 아직 2등급이다. 인력확충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한다.”며 서울지역본부의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지부이니 만큼 집중하면서 관심 갖겠다는 말로 인사를 마쳤다.

노재옥 투쟁본부장(지부장), 의료원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동력은 안전한 병원이다. 안전한 병원 만들고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자.

뒤이어 노재옥 투쟁본부장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단체 교섭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교섭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요구안도 많아지지만 현장의 간절한 요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동반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이 존중되려면 노동시간인정, 주 52시간제도 준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병원의 모든 직원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 해 교섭은 주변 여건을 떠나서 대화를 통해 노사가 신뢰가 있는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일궈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노사 자율타결 의지가 담긴 대화 오고가.

3년 간 준비해온 노사 공동 연구용역 TF로 성실이 이행하자.

약 40분간 진행된 교섭은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사측 대표위원인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이번에는 세종시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자.’며 자율 타결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뒤이어 정혜란 수석부본부장은 “교섭과 더불어 7월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도 노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약 3년을 준비해온 이 사업에 많은 직원들의 현장이야기가 담겨있고 노동문제 연구소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기에 고대의료원의 조직문화, 노사문화, 인력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교섭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의료원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자.” 고 하며 노사 TF를 통해 개선하자고 말했다.

올 해의 교섭은 다른 때보다 자율타결의 의지가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있는 한 교섭이 쉽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노사 모두 더욱 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기교섭을 확정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교섭은 7,300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존중 사람존중 고대의료원만들기 (1) - 임금 인상 6%

슬프다! 임금은 경영상황에 따라 올려주고,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깎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대우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결코 남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고대의료원, 의료수익 1조 클럽 완주!

2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익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2017년 9,7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29억 원으로 8.5퍼센트가 증가해 가톨릭의료원 연세대 등의 대형병원을 맹추격하고 있다. 더욱이 규모의 측면으로 본다면 위의 병원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의료수익	의료이익	의료수익	의료이익
1	가톨릭의료원	21,861	945	23,442	446
2	연세대의료원	20,105		21,348	
3	이신병원	18,860			
4	서울대병원	16,722	111	17,516	65
5	삼성병원	12,392		13,211	
6	백병원	9,884	492	10,542	410
7	고대의료원	9,700	645	10,529	567

■ 역대 최대의 수가인상

한편,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되면서 의료원의 2019년 평균수가 인상률은 2.37%로 전년대비 0.09%(2018년 평균 인상률 2.28%) 높아졌으며,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 원으로 지난해 8,234억 원에 비해 1,524억 원이 증가했다. 병원의 건강보험수가는 병원수가인상률의 4배 정도에 이른다는 분석을 감안한다면, 병원의 경우 평균 9.48%의 수익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 의료원 주머니에 넣어 둔 돈만 4천 억!!

의료원 결산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그마치 약 4,050억 원이 금고에 잠자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적립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매년 쌓아 놓는 금액치고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의료원은 매년 작게는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꾸준히 적립해 놓고 있다. 이 금액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의료수익에서 전입된 금액인 것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A.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	189,239,037,476	254,489,159,561	333,113,314,832	405,185,256,265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60,000,000,000	82,300,000,000	95,000,000,000	91,000,000,000

■ 미래의학을 선도할 고대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삼짱돈 좀 풀어보자!

의사들에게 수익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마땅히 노력한 직원들에게도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원은 ‘발전을 위해 직원들이 먼저 나서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일을 시키기 전에는 밥을 배불리 먹여놓고 시키는 법이다. 미래의학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직원들에게 먼저 배풀어보자!